

<2010년 6월 17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개인에게 맡긴 일들은 각자 부지런히 하면 할 수 있으니, 내가 볼 때 항상 일 밀린 것이 보이지 않게 하여라.” 하셨다.
2. 일은 제때 안 해서 밀리는 것이지, 많아서 밀리는 것이 아니다. 일을 제때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을 두고 필요 없는 다른 일을 하니까지 자기 할 일이 밀리는 것이다.
3. 작은 일도 안 하면 평생 가고, 큰일도 하면 하는 시간부터 없어지기 시작한다. 일은 작으나 크나 착 들어붙어서 무섭게 해야 된다.
4. 농사짓는 사람들, 건축하는 사람들, 작업하는 사람들을 보아라.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느냐. 신앙의 일을 하는 자들은 신사요, 양반이다. 노동하는 자들을 보아라. 노동은 몸부림이다. 이런 일들에 비해 주님의 일은 신선의 일이요, 천사들이 하는 일이다. 공사판에 가서 한 번 일해 보고, 시골에 가서 온종일 쪼그리고 앉아서 밭을 때 보고, 온종일 풀을 베고 땅을 파면서 일해 봐라. 얼마나 육체가 고달픈 일인지 알게 될 것이다.
5. 천사의 일도, 신사의 일도, 신선의 일도 힘들게 생각하면 힘들어서 못하게 된다.